

이스라엘 강신일, 사온미 선교사 기도 편지: 2023년 12월 (제6호)



שנה טובה ומתוקה (샤나토바 우메투카 - 기쁘고 행복한 새해되시길 소망합니다)

다사다난했던 2023년도 이제 지나가고 다가오는 2024년 갑진년 새해에는 가정과 교회, 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시길 소망합니다. 늘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1. 이스라엘 이야기

10월 7일 무장테러조직 하마스가 이스라엘 가자지구 경계근처의 남부 마을들을 기습하여 1,300명의 사망자 발생, 240여명이 가자지구로 납치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시작된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은 이미 80여일을 지나고 있습니다. 여전히 가자지구에 129명의 인질이 잡혀있으며 생사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가자 지구는 총 500km에 달하는 지하터널로 연결되어있고, 하마스의 무기창고가 대부분 병원, 학교, 일반 주택에 은폐되어 있어 가자지구 전체는 하마스의 요새화가 되었습니다. 자국민의 안전과 인질 구출을 위해 이스라엘은 하마스와 전쟁을 해야하는 상황이고, 이집트나 인근 아랍국가는 하마스의 유입을 두려워하여, 가자지구 민간인을 난민으로 받아주지 않는 상황이기에, 가자지구의 민간인 피해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북쪽까지 전쟁이 확대될 조짐이 있어 더 걱정이 됩니다. 전쟁에 자비는 없고 오직 정치적 이해손실만 있기에 전쟁은 어느 곳에서든 일어나면 안 되는 일임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가자 지구에 잡혀있는 인질들이 무사히 돌아오도록, 전쟁이 하루속히 끝이 나도록, 전쟁으로 인해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소망과 위로를 부어주시길 위해 간절히 기도부탁드립니다.

2. 우리들의 이야기

10월 6일 공동체에서 초막절 예배를 드리고, 다음날 일어난 10월 7일의 대참사로 이스라엘 사회 전체는 패닉에 빠졌고 저희도 예외는 아니였습니다. 날마다 남쪽 가자지구와 북쪽 레바논에서 날라오는 로켓으로 인해 늘 예의주시하며 상황을 살펴야했고, 저희가 거주하는 인근지역에도 로켓이 날라오면서 방공호로 대피해야하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이스라엘을 여행자제 3단계로 격상하였고, 대사관에서는 교민들의 철수를 계속 권고하여 잠시 귀국하여야하나 고민도 되었지만, 많은 분들의 기도와 하나님의 은혜로 아직까지 이스라엘 갈멜산 지역에서 안전하게 거주하고 있습니다. 전쟁 중이라 여러가지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지난 10월 말에는 다시 1년 비자를 무사히 갱신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이 허락하신 1년의 시간을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한걸음 한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기도부탁드립니다.

3. 갈멜산 한국어 교실

갈멜 한국문화센터에서는 10월 4일 “살림”이라는 주제로 한국문화의 날 행사를 은혜가운데 마쳤습니다. 재학생, 예전에 다니다가 그만둔 학생들, 한국문화에 관심있는 학생들이 한국의 전통문화(투호, 딱지치기, 젓가락놀이, 윷놀이)와 한국음식(주먹밥, 컵라면, 산적구이)을 경험하며 장기자랑을 통해 서로가 하나되어 즐거운 시

간을 보냈습니다. 행사 3일 후 일어난 전쟁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왜 한국어 날 행사에 “살롬”이라는 주제를 주셨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불가피하게 전쟁과 안전상의 문제로 몇 주간 휴강을 하였지만, 다시 11월에 개강을 하였습니다. 이번 학기 하나님께서 새롭게 7명의 학생들을 보내주셨고, 이 학생들이 이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지난 학기 예수님을 영접한 A학생은 한 교사분의 양육으로 계속 믿음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갈멜산 지역은 드루즈족이라는 소수민족이 거주하는 지역인데, 이 민족 종교공동체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기독교인으로 개종하는 것은 민족에서 파문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학생이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시고, 그의 가정과 가문 대대로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은혜를 주시길 기도부탁드립니다.



4. 케렘엘 메시아니 공동체

케렘엘 메시아니 공동체는 한 지체의 사위가 전쟁 중 전사하여 큰 아픔을 겪었습니다. 또한 공동체의 리더인 스테판과 더불어 에반, 이브가니, 아르덴, 유발, 사무엘, 한나, 베로니카 등 많은 지체들이 전쟁에 참여하여 복무 중입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을 두고 예비군으로 하루 하루 두려움 가운데 작전에 참여 중인 아버지들, 아들들, 형제자매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무사 귀환할 수 있도록 기도부탁드립니다. 전쟁 발발 후, 공동체에서는 월-목요일 매일 저녁 Zoom(수요일은 가족모임)으로 기도회를 진행 중입니다. 오직 이 땅 가운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뤄지고, 모든 이들과 환경들이 새롭게 회복되길 기도부탁드립니다.



5. 전쟁 피난민 자원봉사

전쟁으로 인해 남쪽과 북쪽의 주민들이 이스라엘 중부지역으로 피난을 왔습니다. 전쟁기간 중에 저희는 페타흐 티크바에 위치한 침례교 마을(Baptist Village)에 피난 온 어린이들과 학생들을 섬기는 일과 피난민과 군인들의 물품을 후원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전쟁으로 정든 고향과 집을 떠나 두렵고 불안하고 외로운 아이들과 함께 놀고, 이야기하고, 한국 음식을 나누는 위로 사역을 하였습니다. 이 섬김을 통해 먼저는 저희에게 큰 기쁨이었고 이 아이들이 주님의 위로를 얻고 기쁨을 누렸기를 원합니다.



6. 2024년 기도제목

- 1) 오직 이 땅의 구원이시요 소망이요 살림이신 예수님을 향한 갈망이 이 땅에 가득하도록
- 2) 하루속히 전쟁이 끝이 나고 이 땅에 참된 평화와 안정이 찾아오도록
- 3) 전쟁으로 인해 상처받은 이스라엘과 가자지구의 모든 이들의 몸과 마음을 주님께서 치유하고 회복하시기를
- 4) 이 땅에 믿는 유대인과 믿는 아랍인의 화해와 사랑의 공동체가 곳곳에 세워지도록
- 5) 2024년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난하고 소외된 아이들을 위로하고 세우는 사역의 길이 열리도록
- 6) 한국어 교실 학생들의 마음에 복음의 씨앗이 심기고, A학생이 그리스도의 굳건한 제자로 세워지도록
- 7) 케렘엘 공동체: 장기화된 전쟁 중에도 주 안에서 소망을 붙들고, 동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 되도록
- 8) 강신일 선교사: 영혼육의 건강, 학업과 사역을 잘 병행하도록, 언어 습득 - 아랍어
- 9) 사은미 선교사: 영혼육의 건강, 마음의 평강, 역류성 식도염의 완치
- 10) 협력 교회 및 기도 동역자들과의 지속적인 중보관계를 통해 하나님의 선교가 이뤄지도록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시편 122:6)